

18세기 유럽의 출판풍경

출판의 관점에서 유럽지성사의 전개를 살펴볼 경우, 18세기는 매우 인상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독서대중의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저술과 출판이 하나의 직업이자 본격적인 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저술가들에 대해 종래의 '패트런'이 맡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더 이상 왕후장상이나 부호 같은 한 사람의 패트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해방이었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세에 아첨한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속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펜과 잉크를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공장주(출판사)에 고용되어 있는 한낱 직인(職人)에 불과했다"는 다니엘 데포의 말이나 골드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접하면, 특히 저술가 입장에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였던 듯싶다. "인격이 높은 사람의 후원 속에서 저술했다면 인류의 영예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저술가들도 출판사를 패트런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신문에조차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출판사와 저술가의 이같은 관계를 루이스 코저는 그의 《Men of Ideas》(抄譯本: 지성사의 전개, 진덕규, 현대사상사, 1976: 살롱 카페 아카데미, 이광주, 지평문화사, 1993)에서 "적의(敵意)에 가득찬 단결"이란 역설로 표현한다. 독서대중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표에서는 양자의 이해가 일치하지만, 시장성의 확대를 지상과제로 내건 출판사의 상흔은 저술가들을 정신적 학대로 내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 학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삼류문인들의 거

18세기에 비로소 저술과 출판이 하나의 직업이자 본격적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출판사와 저술가의 관계는 때로 저술가에 대한 출판사의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표현한 글로도 나타난다. 루이스 코저가 런던의 '그럽가'를 묘사한 풍경에서도 그같은 관계는 드러나 있다.

리' 썸으로 번역될 수 있는 18세기 영국 런던의 이른바 '그럽가(街·Grub Street)'에서 저술가들에 대한 출판사의 경제적 학대가 어떻게 자행됐는가를 코저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전한다.

그럽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책의 요약, 번역, 편집에 종사하기도 했고, 값이 나갈 듯한 제목의 책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어느 저술가가 말하고 있듯이 "다락방의 작가와 광산의 노예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의 비참한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펜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무협지 작가나 싸구려 일어(日語)번역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7, 80년대 서울의 종로5가 일원을 연상시키는 그 그럽가에는, 그러나 '실패한 문인들'(코저의 표현에 따르면 '독립적인 문필가가 될 가망이 없었던 저술가의 찌꺼기')만 거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최근 번역된 《꿈꾸는 문인들의 거리》(김영사)의 작가 조지 기싱도 한때 그럽

가의 주민이었다. "런던의 다락방에서 문인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 빵을 먹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책을 사기 위해 도보로 세번이나 집에서 책방으로 왕복한 끝에 끼니를 걸러가며 책을 입수하기도 하였"던 그럽가 주민으로서의 기싱의 면모는 그의 출세작인 《사계(四季)의 수상》(김형국 옮김, 범조사, 1979)에도 잘 드러나 있다. 명성을 얻기 전의 사무엘 존슨도 그럽가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여서 시집 《런던》의 인세로 그가 받은 돈은 고작 10기니에 불과했다.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의 영역본으로 9천파운드의 돈을 버는 성공을 거두었던 알렉산더 포우프의 경우조차도, 자신의 딸에게만 4만5천 파운드의 유산을 남긴 포우프의 출판업자 헨리 린도트의 성공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성공'에 머물 뿐이었다.

그럽가가 상징하는 18세기 영국의 실정에서 출판사가 눈깜짝할 사이에 대기업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은 18세기 후반 이후 점차 변화되기 시작한다. 인세 및 예약출판 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출판사와 함께 저술가들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되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이른바 베스트셀러작가도 출현한다. 이에 따라 작가들의 적개심도 상당히 줄어들는데, 무명의 설움과 궁핍에 시달리던 앞의 사무엘 존슨은 《영국시인의 생애》란 책으로 400파운드의 인세 수입을 올리게 되자, 예전의 박대와 수모는 잊은듯, 한 친구에게 사뭇 들뜬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보게,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 출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전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야."

출판저널

통권 제169호 / 1995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한 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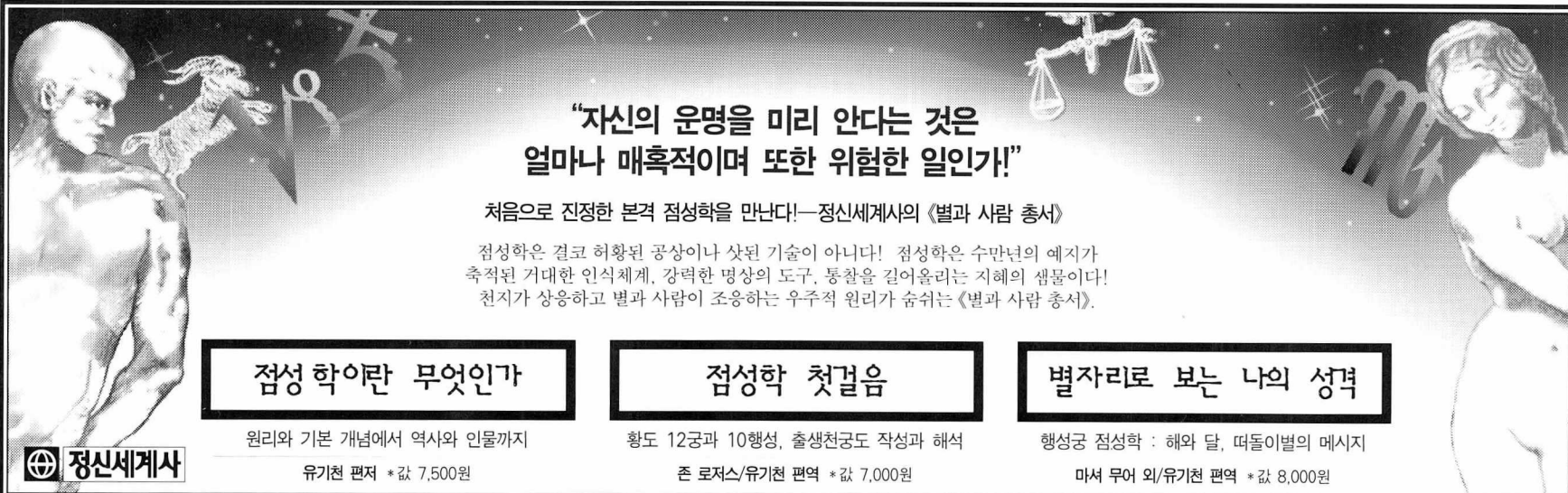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설비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이며 또한 위험한 일인가!"

처음으로 진정한 본격 점성학을 만나다!—정신세계사의 《별과 사람 총서》

점성학은 결코 허황된 공상이나 사뉘는 기술이 아니다! 점성학은 수만년의 예지가 축적된 거대한 인식체계, 강력한 명상의 도구, 통찰을 길어올리는 지혜의 샘물이다! 천지가 상응하고 별과 사람이 조응하는 우주적 원리가 숨쉬는 《별과 사람 총서》.

점성 학이란 무엇인가


원리와 기본 개념에서 역사와 인물까지
유기천 편저 *값 7,500원

점성학 첫걸음

황도 12궁과 10행성, 출생천궁도 작성과 해석
존 로저스/유기천 편역 *값 7,000원

별자리로 보는 나의 성격

행성궁 점성학 : 해와 달, 떠돌이별의 메시지
마셔 무어 외/유기천 편역 *값 8,000원



정신세계사